

한중경제포럼

제12-04호 2012년 8월 9일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

2012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일 시 : 2012. 6. 21 (목) 16:00~18:00

2. 발표자 : IMF 중국사무소 이일형 수석대표

<질의·응답>

질문 1.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66%까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미국 국채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답변 1.

최신 뉴스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경제가 앞으로 8, 9년 정도까지는 계속 버틸 수 있겠지만, 9~10년 이후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미적립식 채무 등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미국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님.

현재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영향이라고 생각함.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안하다가 5~10년 이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확신도 없음. 하지만 사실상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채수익률로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좋음.

질문 2.

2013년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버블 정도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이런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2.

일단 버블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움. 버블이 터진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임. 베이징 등 대도시 경우 고급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여전히 구입 수요가 있음. 중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현금으로 구입한 이런 구입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평균가격도 이런 고급주택들 때문에 훨씬 높아진 것임.

IMF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버블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음.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레버리지가 낮고, 주택 가격은 다양한 형태와 가격의 주택을 평균화한 것이기 때문임. 물론 베이징 등 10개 내외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등 수준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만, 중국 전반 상황에 대해서 버블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중국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중국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약간 조정하기만 하면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금 부동산개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자금조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인데, 만약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될 경우 정부에서 개발업체에게 조금만 자금을 조달해줘도 부동산경기가 회

복합 가능성이 있음.

질문 3.

중국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중국의 금리인하 조정을 예상하였는가? 예상하였다면 근거가 무엇인가? 앞으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답변 3.

정확한 시기는 몰랐지만, 중국인민은행에서 금리인하 의지는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는 예상하지 못하였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중국정부의 금융정책은 이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율을 낮추었다고 금융정책을 완화시켰다는 것은 아님. 완화된 금융정책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 가지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가령 중국에서 기준율을 여러 차례 인하하였는데 매번 인하 조정이 금융정책을 완화시킨 것은 아니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중국정부는 일정 정도 금융정책을 완화시킨 것임.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는 현재 많은 불확실성(특히 유럽 경제)으로 인해 전망하기 어려움.

질문 4.

중국은 한국이나 동남아국가 등 국가들과 비슷한 점이 많음. 과거 경험을 보면 많은 국가는 위기를 통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은 큰 위기 없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위기를 거쳐 경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는가? 만약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저속 성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답변 4.

개인적인 판단으로 중국 정부官员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함. 중국 공산당 리더십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안정(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정)임.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공산당은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생각됨.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임. 레버리지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유동성인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음.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각국 정부에 이전됨에 따라 사회 안정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도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사용하는 것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 해결은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중국경제가 저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함. 만약 유럽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 저성장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질문 5.

IMF에서는 중국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나 정보 신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 5.

IMF가 가진 별도의 데이터는 없음. 일단은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를 신뢰해야 함. 비록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문제점이 없는 나라는 극히 적음. 그리고 정부나 IMF에서는 어떤 데이터든 불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음.

질문 6.

향후 수년간 중국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신규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정부는 정치안정, 사회 안정, 경제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대졸자 취업난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한쪽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야 하느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런 경제성장률과 사회 안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6.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경제 성장률이 7%까지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음. 경제성장률이 7%까지 떨어져도 장기적인 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봄. 대졸자 취업률은 약 2년 전부터 악화되고 있음. 중국 정부가 그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개인적으로 중국의 대졸자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 대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실제 과거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생이 대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유명 대학교 학생들은 취업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도시빈곤층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함.